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JAPAN

일본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26~11/01

1. 𝌆 주요 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 확충 및 수요 대응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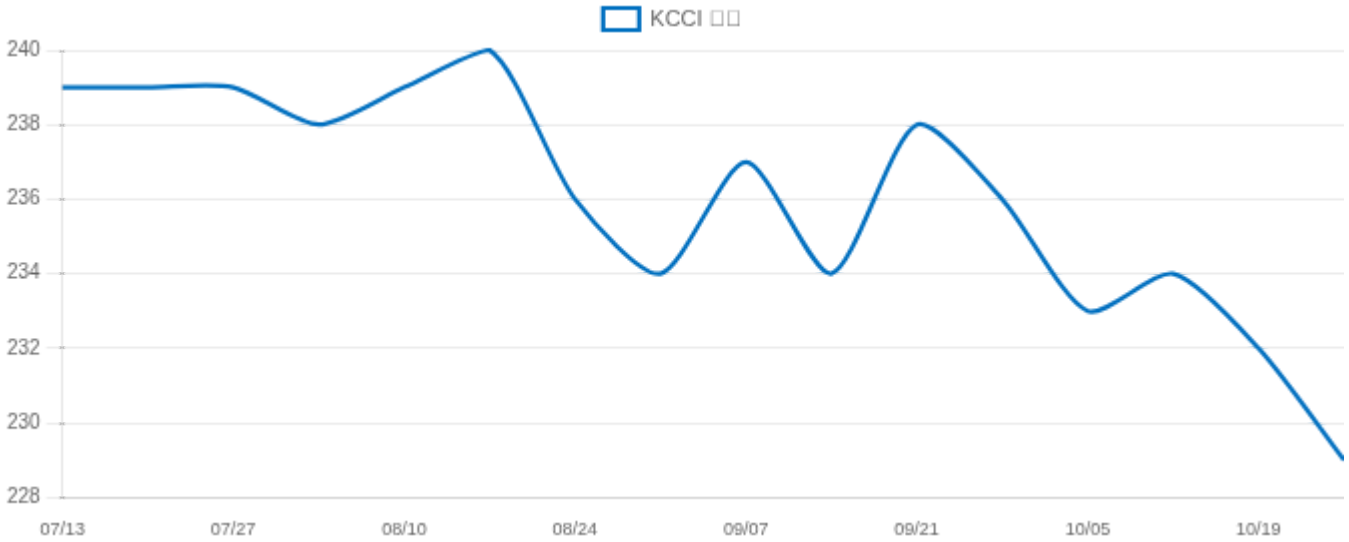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일본 권역에서는 주요 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 확충과 수요 대응이 핵심 이슈로 부각됨. 반도체·디지털 기기 등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고, 일본항공은 대형 화물기 전세 투입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함.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특히 첨단 산업 화물의 안정적 수송 역량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항공화물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일본	229 $/FEU	10/26	-1.3%	-3.0%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10/26

주요 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 확충 및 수요 대응

> **일본 주요 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이 반도체·디지털 기기 등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확충되고 있으며, 일본항공(JAL)은 대형 화물기 전세 투입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함.**

일본항공은 2024년 2월 자사 화물기 운항을 13년 만에 재개한 이후, 보유 중인 보잉 767-300 개조 화물기 3대를 주로 아시아 역내 노선에 투입해 왔음. 그러나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아시아-북미-유럽 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기재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일본항공은 2025년 3월 발표한 2035년 전략에서 대형 화물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고, 미국 아틀라스 항공, 칼리타 항공, 룩셈부르크 카고룩스와 장기 전세 계약을 체결함. 칼리타 항공은 일본항공을 대신해 보잉 747-400 화물기를 나리타-시카고 간 주 6회 운항함.

이러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도체 및 전자 장비 수송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기존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수송으로는 증가하는 화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전용 화물기 운항 확대가 필수적이었음.

항공사들의 화물기 투입 확대는 나리타, 하네다 등 일본 주요 공항의 화물 처리 시설에도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음. 공항 운영자들은 계류장, 화물 터미널 확장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일본 항공 물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임.

- 일본항공, 2024년 2월 13년 만에 자사 화물기 운항 재개, 보잉 767-300 개조 화물기 3대 보유
- 칼리타 항공이 보잉 747-400 화물기로 나리타-시카고 노선 주 6회 운항
- 반도체·디지털 기기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아시아-북미-유럽 간 수요 급증
- 일본항공, 2035년까지 대형 화물기 추가 도입 계획 발표
- 아틀라스 항공, 칼리타 항공, 카고룩스와 장기 전세 계약 체결

전망

일본항공의 대형 화물기 전세 운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사 보유 대형 화물기 도입 가능성도 높음. 일본 주요 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 확충이 병행되면서 일본발 항공화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반도체·전자 장비 화주는 일본발 대형 화물기 운항 확대로 항공 화물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어 안정적인 수송 계획 수립이 가능함.

포워더 — 포워더는 일본발 대형 화물기 운항 증가로 북미·유럽행 항공 화물 스페이스 확보가 용이해져 영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항만·선사 — 항공 화물 처리량 증가에 대비해 일본 주요 공항 운영자들은 화물 터미널 및 계류장 확충 등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함.

참고자료: FreightWaves, Japan Airlines hires B747 cargo carriers to meet high-tech demand (검색일: 2026-11-01)